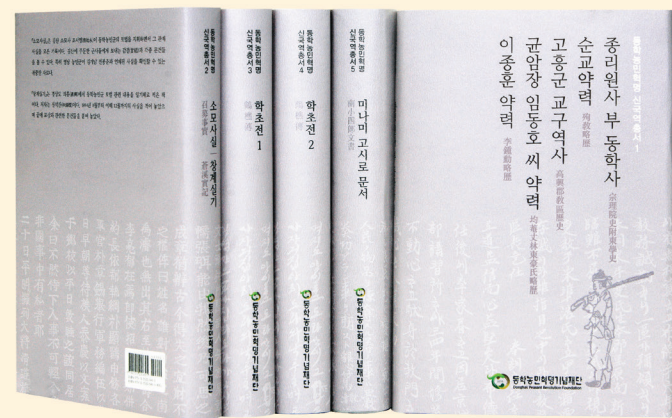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신국역총서 5권 새로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종전에 알려지지 않은 관련 사료를 발굴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5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총서는 경상도·전라도 동학농민군, 일본군 토벌책임자 및 진압에 참여한 관리 등 여러 인물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서술한 자료들로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상황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다.

- **녹두칼럼**
이 땅의 녹두꽃을 가꾸는 손길
- **포토폭**
전라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 **기획①명사대담**
동학농민혁명 정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산
- **참여자 유족 인터뷰**
손상옥의 손자 손용채

2016 | 봄 | 23호

녹두꽃



古阜 斗星山

교부 두성산

조 운

두성산 이언마는 녹두집이 그 어텐고
뒤엎진 늪은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배트소름하고 묻는 나만 보누나

솔잎 댓잎 푸룻푸룻 봄철만 여기고서
일나서 패했다고 설거운 노라 마라
오늘은 백만농군이 죄다 봉준이로다.

이 시(詩)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된 최초의 작품으로 1947년 『조선문학』(年刊)을 통해 발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세력을 농민대중으로 인식한 이 시는 반란사건으로 왜곡된 채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진 채 외면당했으나 그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시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조 운 運 1900~ 이상. 시조 시인.

전남 영광 출생으로 1924년 「웃는 채로 산에 가면」, 「임추」 등을 『조선문단』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1949년 「민성」 1월호에 「갯웃 말아 안고」를 발표한 후 월북하였다. 저서로는 『조운시조집』(1947)이 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3.)

【편집자주】

이번호부터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코너를 신설했다. 앞으로 매호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작품들 중에서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모질고 세찬 모래바람에 자주 지워버려지고 말았을 사막 위의 가느다란 실크로드 2천 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동서양의 문명을 간신히 연결해준 끈이었다. 훗날 해양 실크로드가 서양에 의해 개발되면서 사막의 실크로드는 그 모래바람 속에 거의 묻혀버리고 만다. 그와 함께 세계사는 근세로 접어들었다. 이후로 동서양은 주로 바다를 통해 만났다..... 19세기는 두 문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요즘 말로 결코 쿨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19세기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그 이전 2천 년의 전통질서와 20세기 종엽 이래의 현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그 한 세기 안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계는 전복되었고, 그와 함께 동아시아 내부의 질서 또한 전복되었다. 국제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질서, 경제양식, 사상과 문화의 패러다임이 격동했다..... 그 와중에 20세기의 근대사회로 한국인들이 진입해간 경로는 불행하게도 많은 약소국가 사회와 민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회와 국가권력의 노예로 식민지화를 통째서였다."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발간사 '잃어버린 한 세기의 회상' 중에서, 한길사, 2009, 5~6쪽.

지은이 소개_ 이삼성 李三星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88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지금은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 『20세기의 문명과 야만』으로 제11회 단재상(1998)을 받았으며,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는 2010년 대한민국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1993),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세계와 미국』 등이 있다.

古阜 斗星山 高부 두성산

조 운

두성산 이언마는 녹두집이 그 어텐고
뒤염진 늪은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배트소름하고 묻는 나만 보누나

솔잎 댓잎 푸릇푸릇 봄철만 여기고서
일나서 패했다고 설거운 노라 마라
오늘은 백만농군이 죄다 봉준이로다.

이 시(詩)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된 최초의 작품으로 1947년 『조선문학』(年刊)을 통해 발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세력을 농민대중으로 인식한 이 시는 반란사건으로 왜곡된 채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진 채 외면당했으나 그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시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조 운 筆 1900~ 이상. 시조 시인.

전남 영광 출생으로 1924년 「웃는 채로 산에 가먼」, 「입추」 등을 『조선문단』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1949년 「민성」 1월호에 「갓옷 맡아 안고」를 발표한 후 월북하였다. 저서로는 『조운시조집』(1947)이 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3.)

【편집자주】

이번호부터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코너를 신설했다. 앞으로 매호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작품들 중에서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Vol. 23
2016 | 봄 |

목 차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 조운 [고부 두성산]

04 녹두칼럼
이 땅의 녹두꽃을 가꾸는 손길
| 한승헌 변호사, 前 감사원장

06 포토토픽
전라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녹두학당 개관

08 기획① 명사대담
동학농민혁명 정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산
| 박남수 천도교 교령

14 재단 포커스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

16 참여자 유족 인터뷰
손상옥의 손자 손영성

20 유물소개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22 유적지 탐방 1892년의 역사현장

28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31 기획② 지역사랑방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38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41 언론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43 이 계절의 책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COVER STORY

동학농민혁명 심례봉기 역사광장 [추념의 장]

이름 없이 쓰러져 간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추념의 장]은 심례봉기 역사광장의 핵심적인 조형물이다. 원형 내 부로 들어서면 중앙에 설치된 검은 돌 속에 동학농민군과 나, 그리고 하늘이 중첩되어 비친다. 나와 역사의 일체감은 물론이고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사상의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화한 설치물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6년 봄호 (23호)

발행일 | 2016년 3월 31일 발행인 | 김대곤

발행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 063.538.2894 팩스 | 063.538.2893

이메일 | 1894@1894.or.kr 홈페이지 | www.1894.or.kr

제작 | 홍디자인

이 땅의 녹두꽃을 가꾸는 손길



한승헌
변호사, 前감사원장

필자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둔 1993년부터 10년 동안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의 이사장으로 일했다.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장기 집권을 한 셈인데, 그 때만 해도 '동학란'식 편견이 남아 있던 시기여서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에서 나는 '동백사'의 책임까지 맡게 되었다. 동백사라는 절의 주지가 된 것은 아니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단체협의회'(약칭 '동백사')의 공동대표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전라북도 지사에게 기념식에 나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인 제가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친 사건인데, 어떻게 제가 축사를 합니까?"라고 펄쩍 뛰었다. "지금의 정부, 오늘의 도지사가 구한말의 부패한 관찰사와 같은 벼슬아치라면 안 나와도 좋다"고 받아친 말이 주효했는지, 지시는 기념식장에 와서 축사를 했다.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부 및 국민 일반의 인식도 차츰 달라져서 각계의 협조

를 받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의 국내 봉환,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음악극 <천명>의 지방 공연 성사 등을 통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기념사업의 지평을 넓혔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의미>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념사업의 차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다만, 사업회 운영에 불가결한 자원 확보가 어려워(인건비조차도), 이사장은 여기저기에 손을 벌리고 하소연도 해야 했다. 그 시기에 기념사업회 안팎에서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사업 여건이 적지 아니 호전되었다고 본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탄생했고, 국가기념일의 제정, 기념공원의 조성 등 획기적 비전과 사업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에 따

라야 할 후속작업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국가기념일도, 그 날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재론한다. 2)다수의견에 따른다. 3)소수의견에 따른다. 4)계속 미룬다. -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3)과 4)는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방안인 이상, 나머지 1)과 2)를 놓고 말하자면,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공론 수렴과정을 거쳤다면 1)의 문제는 해소되었다 할 것임으로, 결국 2)로 귀착되는 것이 불가피한 해법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리 다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오던 것이 지방비의 매칭을 조건으로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난관에 부딪혔다고 들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무게를 좀 더 깊이 인식하

여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기념재단이 본래의 사업목표를 충실히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 성과를 올리고 있음은 매우 대견스러운 일이다. 매년 서울과 각 지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기념대회를 추진하는가 하면, 지속적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18명을 새로 찾아내는 등 바람직한 활동이 눈길을 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와 발전을 기대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국 각처의 기념사업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드높이는 일에 참여 또는 후원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라북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01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라북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직업 체험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황토현 전적지) 현장체험 활동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보조교재 활용도 제고 △전국 각 시·도교육청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협력 등이다.

기념재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근대사의 분수령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원 및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깊이를 더해나갈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개관, 교육기능 강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6년 1월 9일 상설전시실 내 체험공간을 '녹두학당'으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 공간은 어린이 전시실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녹두학당은 총면적 139㎡(42평)으로, 어린이에게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이밖에도 벽면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자를 비롯하여 근현대 역사서 등을 비치하였고, 40여 평의 공간에는 어린이들과 동행한 학부모들이 편안하기 놀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마련하였다.

기념재단은 기념관을 찾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주변국의 근대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비치된 자료의 열람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산입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

이번 호부터 [명사대담]을 신설하였다.
그 첫 번째로 박남수 천도교 교령님을 모시고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이 대담을 진행하였다.



문병학 교령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남수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도교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긴 세월동안 가슴을 많이 조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바탕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병신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로 밀어닥치던 때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운동이자 기층 농민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사회변혁운동이었습니다. 동학사상의 중핵은 모심(母心)으로 서구의 평등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평등이 단순한 수평적 평등이라면, 동학에서의 평등(모심, 존중과 배려)은 상호간 상대를 높여서 이루는 상승적 평등인데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동학의 적통을 이은 천도교 최고 어른으로서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치달고 있는 21세기 초입,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지금의 시대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21년 전을 생각해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의미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인류가 변화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럴만한 바탕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근세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저 1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와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입니다. 즉, 동학농민혁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근세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만민평등의 시대를 말합니다. 봉건이라는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서 아직 시민이 주인이 되지 못한 시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일어난 것이지요. 당시 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게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처럼 다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다시금 필요한 시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아서 오늘 우리 앞길을 밝히는 삶의 좌



표로 삼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군은 제국주의 열강의 국권침탈과 조선왕조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시대에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섰다가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과 학살만행으로 1894년 갑오년 시린 겨울산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근대사 시작지점부터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로 빠져들었고, 그 과정에서 구국애민의 표상인 동학농민혁명은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혁명 1백주년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힘 있게 추진되었고, 그 결실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족종교의 최고 어른으로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말씀해주십시오.

박남수 사실 역사는 승자(勝者)가 쓰는 것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때 의견을 우리가 하나로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역사에 반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국가기념일 제정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 때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봤느냐면 전라도 혁명으로 봤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권의 중심이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난으로 된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동학군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바뀌었지요? 사실 1960년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난을 동학혁명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맥락이 이어지다가 1994년 100주년을 전후해서 전국 각 지역에 기념사업단체가 만들어져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복원하는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유족들이나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특별법]을 제정했지요.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단지 때가 좀 늦게 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병학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구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현재화의 초석이 될 국가 기념일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유족이나 관련기관,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혹은 전공연구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남수 역사를 만드는 것에는 꼭 그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고, 새로운 역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천도교는 잘했고, 유족들이나 기념재단은 잘못했다거나 거꾸로 유족들이나 기념재단은 잘했고 천도교는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학혁명 정신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학혁명 정신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기 것, 자기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동학혁명 정신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천도교가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도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동학혁명이라고 씁니다. 이유는 농민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농민을 오늘날로 환치해서 말한다면 모든 국민, 모든 백성을 이야기 하는 건데, 농민이라는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 뭐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생각에서 천도교에서는 차별화를 위해서 ‘농민’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또한 천도교에서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정해서 기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두 가지, 즉 천도교에서 정한 기념일과 농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려놓는 것은 천도교 교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와 결단이 없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의 조속한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천도교는 단호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것입니다. 유족들이나 기념사업 관련단체, 관련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관계자들이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거스르지 않고, 동학혁명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서 뜻을 하나로 뭉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학 특별법이 제정되던 2004년부터 기념일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념일 제정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4년 11월 27일 전국 관련기관과 단체, 유족회, 전공연구자, 관련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동결과 비로소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 전공연구자, 유족회 등이 국가기념일 단일안에 합의하여 지난해 9월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기념일 제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도교 대표 자격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말 그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에 있어서 천도교, 기념재단, 전국유족회가 조금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너무 좁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도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천도교에서 추진해온 날로 하는 게 제일 좋구요. 그 다음은 9월 18일이 재봉기일이 좋은데 왜 6월 11일 전주화약일에 찬성을 했느냐 하면 국가기념일의 의미는 어느 지역의 기념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기리는 기념일로 자리매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단체의 주장에 얽매이지 말고 동학혁명 정신을 받들어 큰 틀에서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문병학 앞서 교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일제정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천도교단의 자체 기념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새로운 국가기념일 단일안 합의를 이끌어내셨고, 이에 대해 기념사업단체나 관련기관의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박남수 제가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읍시장이나 고창군수, 부안군수를 만날 때 그래도 그 분들이 어떤 예의를 갖추든 안 갖추든, 예를 들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더라도 제가 장관 아래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장관이 저한테 와서 교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하는데 이런 격식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7대 종단의 한 종단 대표가 지자체장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런데 동학혁명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들려도 저는 기꺼이 추진위원분들과 추진위원회에서 이끌어낸 단일안을 반대하는 지자체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게 동학혁명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지자체장들이 천도교 교령이 직접 나와 자리하고 있는데 큰소리 내면 그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런대로 논의가 차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동학농민혁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병학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기념일 단일안을 어렵게 합의,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념일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기념일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당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요.

박남수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방문하였지만 그동안 추진위의 활동에 대하여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그런 저간의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추진위원회에서 11년간 이루지 못했던 국가기념일 단일안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어야죠.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문체부에서도 모니터링도 나오고 했었어야지요. 국가의 기본정책은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을 선양 사업하는 기념재단이나 유족이나 천도교가 힘을 합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체부의 일을 절반 정도는 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국가기념일 제정을 성공한다고 하면 문체부 장관한테 우리는 표창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놓은 것 게다가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특정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논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추진위원회 활동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가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대한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에 미온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 관계자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긍지를 가지고 있는 호남 분들이 각성할 필요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미한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문병학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역사를 공부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으로 그 어떤 혁명보다도 값진 혁명으로 인정받도록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없었으면 3·1운동이 없었고, 3·1운동이 없었다면 우리의 민족정신은 바로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족정신이 바로서지 못하면 남북통일도 요원할 것이기에,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학혁명은 천도교가 하는 것이니 천도교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천도교는 종교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 민족 모두가 선양해나가야 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산입니다. 동학혁명 정신이 이 시대에 큰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10차 정기 이사회 개최

서울 용산역 4층 회의실에서 3월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10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는 2015년도 결산안 및 정관 개정안 심의가 있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 결과,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현황, 기념공원 추진현황보고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8차 운영위원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8차 운영위원회가 2016년 2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역 제5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대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홍영기, 정성재, 노윤경, 권오열, 김용삼, 윤석모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도 결산안, 제122주년 기념대회 개최지역, 기념관 활성화 방안,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현황 등이 검토·논의되었다.

동학농민혁명재단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도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을 쉽게 검색하고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전라북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양호전기, 흥선대원군 효유문을 비롯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유물 5,401점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을 마쳤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보급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의 형태나 이미지, 재질 등 세부적인 정보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유물관리 시스템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NFC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NFC 유물카드 터치!

- ⇒ 보다 많은 전시내용 이해
- ⇒ 타인에게 전시내용 전달
- ⇒ 유물정보 다운로드 후 학습활용 등

■ NFC 접속 요령

1. 스마트폰 환경설정으로 들어가서
2. NFC를 켜진 상태로 설정
3. NFC 읽기/쓰기 모드를 확인
4. 유물카드를 스마트폰으로 터치!

2016년도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영

• 답사개요

- 기 간 : 2016년 2월 ~ 12월(학기 중 상시 접수 및 운영)
- 지 역 : 전국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 대 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학부모 가능)

• 지원사항

- 버스 임차, 여행자 보험, 유적지 해설, 중식·간식 제공, 답사자료집 제공 등

• 주요 프로그램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관련영상 시청,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 문의 및 참가신청

- 연구조사부 063-538-2898 / e-mail : 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교육명

- 어린이 :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
- 청소년 : 살아 숨 쉬는 우리 역사, 동학농민혁명을 만나러 가자!

• 대상 및 구분

- 어린이 : 6~7세, 초등학교 1~4학년
- 청소년 :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 교육인원 : 40명

• 교육일정 : 2016년 3~6월, 9~11월

(상세일정 별도협의)

※ 교육일정, 시간, 내용 등은 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 문의 및 참가신청

- 기념관운영부 063-536-1894

e-mail : envypay@1894.or.kr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손상옥의 손자 손영성

Q 손용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손상옥 할아버지의 손자 손용채입니다. 밀양손씨로 할아버지 손상옥은 32대 손이고, 저는 34대 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는 유족회가 창립된 1994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제 이름이 손용채였는데, 2008년도에 손영성으로 개명(改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유족회나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이름이 손용채에서 손영성으로 바뀐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텐데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유족회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이 아직 잘 몰라 개명 이전의 이름인 손용채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늦게나마 제명한 이유는 조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조카들의 향렬이 <채>자 향렬이라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는데, 활동하신 내용이나 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어떤 분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는지요?

A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동내용이 담긴 자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3살 되던 해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하였다가 섬진강 전투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90십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 “니 아버지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했습니다. 그때는 별 감정 없이 들었는데 1994년도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지역 방송이나 중앙 방송에 나오고, 전남일보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연재기사가 나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렵 제가 MBC에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섬진강 전투지에 가서 촬영하자고 해서 방송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Q 섬진강 전투라고 하면, 하동 고승당산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전투 이후에 연달아 섬진강 부근에서 일어난 전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부님에 대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의 기억은 어떤가요?



손용채씨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

A 할아버지께서 섬진강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정확하게 어느 전투를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전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것에 따르면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말을 타고 다니실 정도로 부유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유림의 학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을 남들보다 빨리 접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이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시던 곳은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때가 1893년 12월 24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Q 조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는지요?

A 섬진강 전투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도포라고 해서 삼베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니셨는데, 전투에도 도포를 입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섬진강 전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일본군들이 큰 구덩이를 파서 전사자들을 그곳에 몰아넣고 시신 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구덩이를 뒤져서 할아버지가 입고 계시던 도포를 알아보고 찾아냈다고 합니다. 도포가 덜 타고 남아있는 부분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려고 인부를 사서 다시 구덩이에 갔는데 구덩이가 다시 메워져서 할아



버지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미신이 많은 때라서 할머니는 집에 오신 후 밤나무로 채백(시신을 본뚫 짓)을 만들어서 묘를 썼다고 합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 때문에 후손들이나 집안에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지요? 선조들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도 얘기해주십시오.

A 그 당시 전투가 끝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손들이 어떤 행사나 일에 나서지 못하고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큰집이 전남 광양 옥룡에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큰집으로 피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 잠시 피해 있다가 상황이 좀 조용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시끄러워지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조부님께서 남긴 서책이나 기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물 등 전해져오는 것은 없는지요?

A 그때 당시에는 집에 여러 종류의 서책이나 다양한 형태의 나무패짜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책이나 패짜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Q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구국애민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는 어떠신지요?

A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반역자, 죄인으로 몰렸다가 명예회복이 되니 감회가 새롭고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는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유공자로 지정해서 그에 따른 보상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분들이 반란군으로 몰리면서 후손들이 받은 고통이 엄청난데 그 후손들에게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누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Q 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서 빨리 갑오선열님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아픈 얘기인데도 찬찬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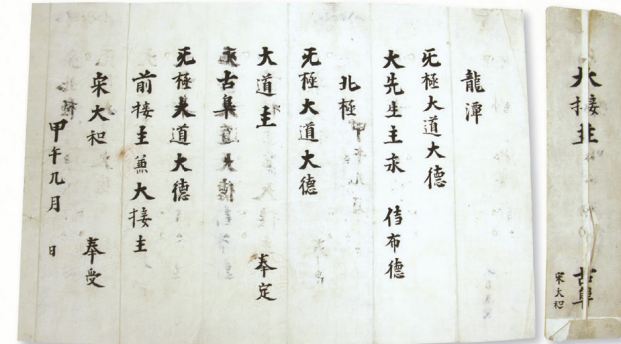
〈사발통문〉과 〈일괄문서〉는 2015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 주도세력이 남긴 유일한 기록물로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2명이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작성하였다. 이번에 함께 문화재로 지정된 〈일괄문서〉는 〈송두호 교장임명장〉,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이왈수 별교장 임명장〉, 〈(정유3월) 교장 임명장〉 등이다.

사발통문 소장자인 송택렬 씨는 201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사발통문과 관련 유물 4점을 기탁하였고, 기념재단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였다.

사발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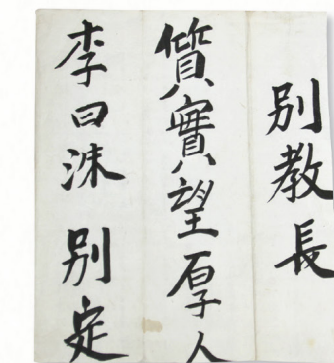
일괄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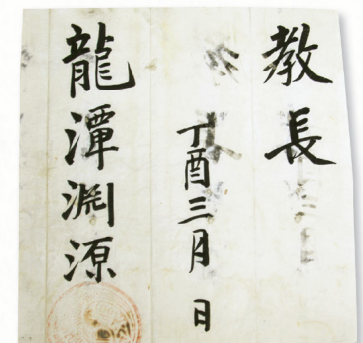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송두호 교장임명장



이왈수 별교장 임명장



정유 3월 교장 임명장

1892년 역사 현장을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1892년(임진년) 동학교단의 움직임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발발 300주기이기도 한 1892년은 세도정치에 따른 지방관의 가렴주구가 극심해지고, 강제로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1876)의 결과 곡물유출 등 일제의 노골적인 경제적 침탈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던 해였다. 나아가 188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삼남지방(전라·경상·충청) 전역으로 동학이 확산되면서 교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지방관들의 탄압 또한 극심해졌다. 이런 제반의 모순 속에서 1892년 8월 전라도 무장(지금의 고창군) 손화중 포(砲)의 동학교도들이 선운사 마애석불비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동학교도들이 10월 20일 공주에서, 11월 1일 전라도 삼례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를 이루는 1892년의 역사현장을 돌아보았다.



보물 제1200호(1994.05.02.)

선운사 마애석불비기 탈취사건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

이곳은 1892년 8월 동학교단 무장 대접주 손화중 포(包)에서 교세확장을 위해 마애석불 배꼽에 감춰진 비결(秘訣)을 탈취한 역사의 현장이다.

선운사(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이다. 선운사는 577년(백제 위덕왕 24년)에 검단

선사와 의운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마애석불은 선운사 도솔암 서편 칠송대 바위 벽면에 새겨져 있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 초기에 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3.3m 높이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불상의 크기는 높이 5m, 폭 3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애불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미륵상은 3천 년 전에 살았던 검당선사(黔堂禪師)의 진상(眞像)이라고 한다. 미륵의 배꼽에 신비스런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 이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은 곧 나라가 망하는 날이라는 소문이 전해져왔다. 1892년 8월 손화중 포에서 이 비결을 탈취하였고, 이후 동학교도가 급증했다고 한다. 비결 탈취사건을 계기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에는 동학의 사상과 조직이 농민전쟁과 연계되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갑오년의 농민전쟁은 1860년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과 관련이 깊다.

시천주(侍天主)를 골자로 하는 동학사상의 중핵은 모심(母心)이다. 모심(나눔과 배려)을 바탕으로 둔 동학의 평등은 서구의 평등과 차원이 다르다. 서구의 평등이 수평적인 평등이라면 동학의 평등은 상호간 상대를 높여서 이루는 상승적 평등이다.

수운은 제자들에게 시천주의 시(侍)를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일세지인(一世知人) 각지불이자야(各知不移者也) -신령스러움을 모신 모든 존재는 서로 화합을 추구하면서 통일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쳐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모든 존재가 화합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모심(존중과 배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다.

공주 집회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97, 240, 241 일대 |

동학의 교세는 1880년대 후반부터 충청·전라·경상 등지로 크게 확산되었다. 동시에 동학교도에 대한 관의 탄압도 더욱 가혹해졌다. 충청·전라도의 교도들 가운데 체포·구금되는 자들이 속출하여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조의 신원(伸冤)과 포교의 자유를 바라는 교도들의

열망도 고조되어 첫 번째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였다.

1892년 10월 동학교단은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자신들이 축원하는 것은 광제창생(廣濟蒼生)과 보국안민(保國安民)임을 강조하면서 동학은 사학(邪學)이 아니라 유불선을 합일한 것으로 유교와는 대동소이하다는 점, 일본이 각 항구에서 통상을 통해 이익을 독점하고 전곡(錢穀)을 다 빼내어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 동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단하고 체포된 교도들을 석방할 것, 최제우의 신원을 조정에 계달(啓達)해 달라는 것 등을 요구하였다.

감사 조병식은 <제음(題書)>을 내려 동학은 이단일 뿐이며, 금단 여부의 문제는 조정에서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10월 24일에는 각 읍에 <감결>을 내려 동학금단에 따른 폐해를 엄금토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사학으로 규정되어 극심한 탄압을 받던 동학의 입장에서 볼 때 고무적이었다. 이에 따라 동학교단에서는 11월 1일의 전라도 삼례에서 다시 집회를 가지게 되는 등, 공주집회는 이후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금구집회 등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삼례집회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74-8 |

삼례는 1892년 11월 1일부터 교조신원운동의 일환으로 동학 교도들의 집회가 열렸던 곳이자 1894년 9월(음력)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가 일어난 곳이다. 집회가 열렸던 당시 삼례역은 현재 삼례동부교회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삼례는 동학농민혁명 전사단계(前史段階) 때는 물론이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곳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반외세 민족항쟁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철저히 거세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도 역사의 뒤편 길에 묻히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혁명 1백주년을 전후하여 전북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1996년 10월 26일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의해 삼례천변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가 건립되었고, 2000년대 완주군에서 삼례읍 신금리 완주군문화체육센터 부근에 <삼례봉기 역사광장>을 조성하여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동학교단은 1890년 전후하여 입교자가 늘어나자 1892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교단측은 11월초 전라감사에게 동학교조 최제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삼례집회를 개최한다. 이때 동학교도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삼례역이었다. 한편,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점령, 친일내각수립, 청일전쟁 도발을 지켜보던 동학농민군은 고조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삼례에서 제2차 봉기를 단행, 전국적인 반일항전의 횃불을 들어올린다. 이때에도 동학농민군은 삼례역에 대도소를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표영삼, 『동학2』 통나무, 2005.

오지영, 『東學史』 대광문화사, 198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2011.

삼례봉기 역사광장

기념관 방문단체

기념관 방문단체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경향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아 '70인과의 동행 -이이화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난 3월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향신문사에서는 참가한 기자들이 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글을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주 1회씩 게재하기로 하였다.



일본 역사연구모임 KAJA 회원 기념관 방문

2016년 3월 19일 일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KAJA (Korea and Japan alternative learning group) 회원 18명이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답사하였다. 오전 9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답사한 후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동상과 옛기념관, 제민당, 전봉준 고택 등을 돌아보았다. KAJA 그룹은 일본 도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 공부를 통해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모임이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기념관 방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난 2월 19일 제2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생 22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승진리더 과정 중 민생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이라는 과목을 수행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택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라북도 수습사무관, 기념관 방문

2016년 전라북도 수습사무관 17명이 지난 3월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라북도에서 수습중인 사무관들에게 시군현황 청취 및 대표 관광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군 실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황토현전적지, 말목장터, 전봉준 고택 등 주요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광나루 장로회신학교, 기념관 방문

지난 2월 23일 서울 광나루장로회신학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단 32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광나루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로 참되고 유능한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날 답사에 참가한 정윤택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전북 정읍지역을 방문하여 기념관과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봉준 고택 등을 돌아봤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사의 관문을 활짝 연 동학농민혁명 성지를 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기념관 방문단체

상주동학농민 혁명계승사업 회를 찾아서

우리동네 사람들, 기념관 방문

지난 2월14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리 동네 사람들> 24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답사단은 기념관을 비롯하여 황토현전적지, 전봉준장군 고택, 만석유지비, 백산봉기 터 등을 둘러봤다.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차가운 바람결에 발그스레해진 두 볼을 손으로 비비면서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관람한 아이들 눈망을 덕분에 기념관도 덩달아 빛이 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기념관 방문

지난 2월17일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답사반 학생 17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했다. 1955년 창설된 사학과에서는 시대와 국가를 망라한 인간 삶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고 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에 맞는 지성과 역사인식, 역사적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 폭넓게 공부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았다.



이우고등학교, 기념관 방문

2016년 2월 18일 이우고등학교 역사답사동아리 [내발디딤]에서 13명의 학생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학교명칭 앞 두 글자 '이우'는 벗과 함께, 벗 삼아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각 학생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 상호간에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방침 아래 운영되는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역사답사동아리인 내발디딤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큰 산봉우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념관 방문을 선택했다.



일 시_ 2016년 3월 16일

장 소_ (사)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참 석_ 박찬선 |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초대회장

김봉기 |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정용운 |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부이사장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121주년 기념대회 때 서울에서 뵈고, 11월 3일 상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뵈고 또 다시 뵈니까 한 식구처럼 스스럼없이 참 좋습니다. 백주년 한 해 전인 1994년 [상주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그 때 초대회장을 맡아 애를 많이 쓰신 박찬선 선생님부터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과 인연을 맺게된 것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선

저는 1976년 『현대시학』 추천을 거쳐 문단에 나왔는데, 그때 추천작품 중 한 편의 주제가 「동학」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동학은 생래적으로 시정신(詩情神)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1994년 상주기념사업회를 결성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앞장서게 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벌써 2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당시에는 한국문인협회 상주지부장을 맡고 있었지요. 근래 시작(詩作)은 동학정신의 시적 형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병학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설립된 배경과 그동안 지역에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 등을 말씀해주시요.

박찬선

1894년 갑오년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상주와 인근에서 희생된 농민군은 어림잡아 약 2,760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1994년 희생된 농민군들의 외로운 혼령을 위무하는 해원의 제(祭)를 올리고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든 인간 평등과 자주와 자존의 동학정신을 선양코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봉기 이사장

자 상주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뒤에 개칭)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소재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상주기념사업회 창립 때 학술대회를 공동주최 해주는 등 많이 지원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 문선생님이 사무국장으로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 신영우 교수님 등과 함께 창립대회 때 참석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렵게 출범한 때로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줄기차게 전개했습니다. 영남북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발표회’ ‘미술작품기념전, 동학을 주제로 한 연극 ‘궁궁을을(弓弓乙乙) 1894’, ‘합동위령제’ 등을 힘있게 추진했고, 2년 뒤인 1996년에는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상’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상주는 다스린 쪽과 다스림을 받은 쪽이 공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기록한 민보군과 연관된 소모사 정의묵의 소모일기(召募日記)와 유생의 기록으로 유격장 김석중의 토비대략(討匪大略)이 남아있지요.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동학에 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 백안시하거나 심지어는 폄훼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늦게나마 누군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봉건이 잔재를 일소하고 신분과 지위 계층을 초월하여 많은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루었다는 점은 특기할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기습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문병학

네, 전라도와는 사뭇 다른 지역정서로 박찬선 회장님과 2대 회장을 맡으셨던 강효일 회장님 등이 참 고생 많으셨지요. 지난 번 상주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강연을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조금 일찍 천변, 소천변이지요? 1996년에 세웠던 상주동학농민군상을 찾아갔더니 그 장소가 완전히 변했었는데... 농민군상도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된 건지 김봉기 이사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기

민족 생존을 위해 외세와 불의에 맞서 싸우던 상주농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내일을 위해 힘찬 전진을 약속하자는 뜻을 담아 어렵게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상을 건립했었습니다. 건립 이후에 그 기념상이 서 있던 곳으로 도로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 기념상이 복원이 불가능할 만큼 많이 훼손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농민군상은 예를 갖춰서 파기하고 그 대신 2008년 10월 상주시 북천공원에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동학농민군 영령들께서 저희들을 보살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병학

단체 명칭을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계승사업회로 바꾸었는데, 그동안 상주계

승사업회에서 개최해 온 [상주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가 올해 몇 회째인가요? 문화제의 성격과 주요 행사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박찬선

기념상 건립 이후 기념제를 띄엄띄엄 해오다가 북천공원에 기념비를 세운 2008년부터 동학농민군이 상주읍성을 점령했던 날인 음력 9월 22일을 기해 매년 추진해왔으니까 올해로 아홉 해를 맞았군요. 처음은 주·과·포를 마련하여 기념비 앞에서 동학 할아버지들께 잔 올리는 것으로 단순하게 출발했었지요. “萬事知 食一碗,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알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해월선생의 밥 사상을 깊이 새기며 실천했지요. 그렇게 시작해서 몇 해 전부터는 인터넷 문학을 선도하는 웹진 문학마실과 연계하여 상주동학농민혁명 기념문집 발간사업과 시낭송, 문화공연 등을 곁들여서 왕산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념문집의 필진은 전국에 걸쳐 있는데 동학에 관심이 있는 문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요. 동학정신의 선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올해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지요?

정용운

우선 이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표지석 세우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회원들의 성의와 열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할일은 많은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동학농민혁명 116주년 전국 기념대회가 상주에서 열렸는데, 그 기념대회가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지요. 이점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측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상주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예천 지역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들이 많은데, 그 유적지들의 보존상태는 어떤가요?

박찬선

한 마디로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적지 보존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소멸되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와 문화 현장의 보존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의 일로 해월선생 포덕 도량이 훼손 철거되는 등 아쉬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존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기념재단에서도 이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봉기

상주에는 유적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주에 유적지가 많은데 상주시청에 가서 무작정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주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몇 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후손된 입장에서 상주시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행사 등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차 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적지마다에 표지석을 하나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표지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앞으로 1년에 한 개씩이라도 표지석을 만들어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 땅에 표지석을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사유지나 공유지에 세워야 합니다. 상주시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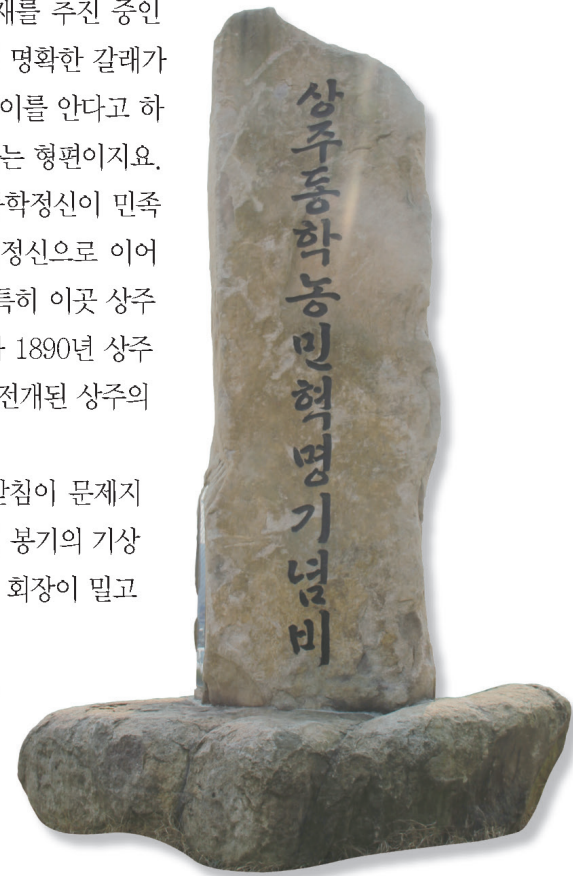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전북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박찬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첫째로 아직도 동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상주 은척 동학교당] 등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 명확한 갈래가 지어지지 못해 혼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녹두장군 얘기가 동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형편이지요. 인간의 평등과 자주, 자존을 내세운 인내천의 동학정신이 민족정신, 민주정신으로 계승 발전되고 평화와 생명정신으로 이어지는 거듭남의 정신임을 강조해야 될까봅니다. 특히 이곳 상주에서 일어났던 신라말기 원종과 애노의 일어섬과 1890년 상주 함창의 농민운동에 이어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 전개된 상주의 정신을 발양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의 열악함입니다.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지요. 지금까지도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날 농민들의 봉기의 기상으로 박찬선, 강효일 회장에 이어 김봉기 현재의 회장이 밀고 나가는 수밖에요. (웃음) 다행히 근래에 학생들이 동학을 알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교아카데미에 동학을 주제로 한 강의가 개설되는 등 열림의 기운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야겠지요.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박찬선 초대회장

문병학

상주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찬선

상식에도 못 미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증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따르는 계도와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행사가 있어야겠지요. 지역의 각종 문화와 학술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동학에 대해서 발표하고, 기념문집 제작 보급과 전시 공연 등 다각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요.

박찬선

지난 해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현장답사는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 동학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재단과 지역사업회 간에 이런 좌담화와 같은 모임을 통해 긴밀한 유대가 되어 함께하는 동학이었으면 합니다. 기념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유인물(학술 및 정기 간행물 포함)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론하는 정기적인 모임도 가졌으면 합니다.

김봉기

문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상주에는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다, 동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10명중 9명은 천도교 동학교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동학의 종교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동학농민군들의 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의 여건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이러한 현상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주고 힘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문병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찬선

지역사랑방이라는 이런 대담 코너를 만들어서 기념재단이 지역단체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유약해지고 있는 지역 기념사업회의 활동에 생기를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결국 동학운동은 인간답게 잘 살자는 운동이겠지요. 동학이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고유하고 품격 높은 인간정신이자 삶의 지표임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수행에 필수적 3덕목인 誠, 敬, 信의 사상을 환기, 실천하는 대대적인 정신운동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모심(持)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요. 그것이 곧 새 시대 구원의 길이자 참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단체 포커스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재창립 준비위원회

지난 2월 20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층 세미나실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재창립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준비위원회는 2015년 12월 11~12일 공주시 갑사유스호스텔에서 기념재단 주최로 개최되었던 전국 기념사업단체 워크숍 개최 때 구성되었다. 지역단체 관계자 12명이 머리를 맞대고 기념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동단협 재창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준비위원장인 박남식(공주사업회 이사장), 사무국장에 이원해(공주사업회 사무국장)를 임명,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일을 2016년 2월 20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제2차 동단협재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10개 단체, 1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동단협재창립준비위원회 결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진윤식(전라), 정갑선(경상), 박성묵(충청) 3명과 사무국장에는 이원해(공주사업회 사무국장), 총무에는 최고원(김제사업회 상임이사)을 각각 선임했다.

오는 4월23일로 예정된 제1차 동단협재창립준비위원회는 재창립될 동단협의 활동방향과 역할, 재창립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전봉준 장군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0주년 기념행사가 1월 10일 고창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 고창군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회의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장남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전성준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고창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국악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헌수, 봉장, 헌화 등 봉정의식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우정 고창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대립과 민족주의가 팽배해져 국가와 민족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경시되는 지금 이야말로 동학농민군들이 추구한 차원 높은 인본주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기총회 및 역사특강

사단법인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서현중)에서는 지난 1월 15일 정읍시 이평면 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제7차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기총회 및 역사특강을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에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힘있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정기총회에 이어서 열린 역사특강은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김대곤 이사장은 갑오년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동학농민혁명 120년이 지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단체 포커스

|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고부봉기 기념제 및 상징조형물 건립제막식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었던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가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읍시 이평면 예동마을과 인근 말목장터에서 열렸다. 식전행사로 이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배들농악단 풍물놀이와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최초봉기 상징조형물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고부농민동학혁명유족보존회가 중심이 된 고부봉기재현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읍시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정읍유족회가 후원했다.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관련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번에 제작 설치된 상징조형물은 2014년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작품으로 조형물 하단에는 전봉준, 최경선, 송두호 등 사발통문 거사계획 참여자 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충남 아산,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발간 출판기념회 개최

청남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참여자, 유적 등을 망라해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는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자료집(107쪽)을 발간하고 지난 1월 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자료집에는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발발 배경과 전개과정 등을 연구한 논문과 함께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아산지역 유적 현황조사표 등과 아산지역 동학접주였던 이신교의 손자 리한구 옹의 증언도 수록되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정해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아산 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조명하는 학술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아산지역이 청일전쟁의 직접적 희생 지역이었고, 내포동학농민군과 함께 아산에서도 봉기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국운이 쇠할 때 나라를 구한 위대한 동학농민군들이 있었음에 한없는 고마움과 충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1월03일(일)	뉴스메이커	사발통문 등 정읍의 주요 문화재 4건,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
1월03일(일)	아주경제	정읍의 주요 문화재 4건,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
1월05일(화)	아시아경제	[지역]고창군, 전봉준장군 탄생 제160주년 기념행사 개최
1월05일(화)	뉴스1	고창서 10일 전봉준 장군 탄생 160주년 행사 개최
1월05일(화)	국제뉴스	고창군, 10일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0주년 기념행사
1월05일(화)	연합뉴스	고창 녹두장군 전봉준 탄생 기념행사 10일 개최
1월05일(화)	전북도민일보	전봉준장군 탄생 제160주년 기념행사 개최
1월05일(화)	전북일보	전봉준 장군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 10일 고창서 개최
1월06일(수)	아주경제	고창군, 전봉준장군 탄생 제160주년 기념행사
1월06일(수)	전민일보	고창군, 10일 전봉준 탄생 160주년 행사 개최
1월07일(목)	광주일보	전봉준 탄생 160주년 기린다
1월07일(목)	뉴스1	동학농민혁명재단,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도입
1월07일(목)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개관
1월08일(금)	경향신문	'동학지도자 전봉준장군은 훈장님'녹두학당 가보세
1월10일(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작은 배움터 '녹두학당' 개관
1월11일(월)	전북일보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체험공간 '녹두학당' 운영
1월21일(목)	대전일보	107쪽 분량 자료집 발간 아산 동학농민혁명 '한눈에'
2월15일(월)	전북일보	고부농민봉기 기념 상징조형물 제막
2월15일(월)	새전북신문	정읍 예동마을-말목장터서 '고부봉기 재현 행사'
2월15일(월)	전라일보	정읍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재현 행사
2월15일(월)	뉴시스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를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식
2월15일(월)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2월15일(월)	연합뉴스	'동학농민군의 함성'...정읍서 '고부봉기' 재현
2월15일(월)	뉴스1	동학농민혁명 고부 봉기...정읍 이평서 재현행사 열려
2월15일(월)	국제뉴스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가자
2월16일(화)	일요신문	정읍서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재현
2월16일(화)	아주경제	정읍, 동학농민혁명 122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개최
2월16일(화)	울산매일	'동학농민군의 함성'...정읍서 '고부봉기' 재현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3월09일(수)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69명 새롭게 확인
3월09일(수)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 269명 추가 확인
3월09일(수)	새전북신문	[사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69명 새롭게 확인
3월09일(수)	연합뉴스	동학혁명재단 "동학혁명 참여 269명 확인"... 명예회복 추진
3월10일(목)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3월10일(목)	한겨레신문	동학농민혁명 참여 269명 추가 확인
3월11일(금)	동아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57명 신원 새로 밝혀졌다
3월14일(월)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국역총서〉 발간] 동학농민군 경험담 토벌군 기록도 수록
3월14일(월)	전북도민일보	새롭게 엮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월14일(월)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새롭게 조명
3월14일(월)	한겨레신문	이해 쉬운 동학농민혁명 총서 나와
3월14일(월)	전라일보	누구나 알기쉬운 '동학혁명'
3월14일(월)	국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관계자들 자료 발굴 신국역총서 5권 발간
3월14일(월)	연합뉴스	동학혁명재단 '동학혁명 신국역총서' 발간
3월14일(월)	강원일보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2명 추가확인
3월15일(화)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5권 새로 발간
3월15일(화)	광주일보	'동학혁명 신국역총서' 5권 발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모질고 세찬 모래바람에 자주 지워버려지고 말았을 사막 위의 가느다란 실크로드 2천 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동서양의 문명을 간신히 연결해준 끈이었다. 훗날 해양 실크로드가 서양에 의해 개발되면서 사막의 실크로드는 그 모래바람 속에 거의 묻혀버리고 만다. 그와 함께 세계사는 근세로 접어들었다. 이후로 동서양은 주로 바다를 통해 만났다..... 19세기는 두 문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요즘 말로 결코 쿨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19세기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그 이전 2천 년의 전통질서와 20세기 중엽 이래의 현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그 한 세기 안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계는 전복되었고, 그와 함께 동아시아 내부의 질서 또한 전복되었다. 국제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질서, 경제양식, 사상과 문화의 패러다임이 격동했다..... 그 와중에 20세기의 근대사회로 한국인들이 진입해간 경로는 불행하게도 많은 약소국가 사회와 민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회와 국가권력의 노예로 식민지화를 통째서였다."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발간사 '잃어버린 한 세기의 회상' 중에서, 한길사, 2009, 5~6쪽.

지은이 소개 이삼성 李三星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88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지금은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 『20세기의 문명과 야만』으로 제11회 단재상(1998)을 받았으며,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는 2010년 대한민국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1993),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세계와 미국』 등이 있다.